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 뉴스

파리시의 사회적 약자 겨울나기 정책

문화·관광

- 핫 플레이스로 탈바꿈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지

- 강변음악회 상설 개최해 아름다운 충청시 야경 홍보

사회·복지

- 홍콩의 노령생활수당 제도

- 중오·집단범죄 피해자 대상 보상금 지급

환경·안전

-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시카고의 도시계획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아메리카〉	
미국	
매디슨·시카고	조민서
샌프란시스코	송태수
시카고	강기향
포틀랜드	김규리
	김현철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캐나다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한 울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황현정

〈아시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싱가포르	
싱가포르	이지은
인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재현
일본	
도야마	서유환
도쿄	김영준
중국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장한빛
독일	
베를린	홍남명
슈투트가르트	정윤주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스페인	
바르셀로나	진광선
이탈리아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프랑스	
파리	김나래
	정연주

파리시의 사회적 약자 겨울나기 정책

프랑스 파리시 / 사회·복지

겨울은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로 프랑스 정부는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길에 나앉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기간을 정해 실행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음. 또한 프랑스 파리시는 관련 기관과 함께 겨울에 노숙자나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한 이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사업 개요

- 파리와 인근 지역(일드 프랑스) 인구의 약 14.5퍼센트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 중
- 2023년 1월 ‘연대의 밤’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파리 시내 3,015명이 노숙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2022년 조사에서 집계된 2,598명에 비해 16퍼센트 증가한 수치
- 파리시에서만 약 5만 명이 안정적인 주거지 없이 생활하며 4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길에서 자는 것으로 추정
- 파리시는 사회적 소외 방지 협약(le Pacte du lutte contre l'exclusion)의 두 번째 실행계획(2022-2026)을 발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 중
- 겨울 동안 노숙자를 위한 숙박장소 제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식사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을 지속 펼칠 예정

주요 내용

- 동계 세입자 퇴거 중지 제도(La trêve hivernale)
 - 1954년도에 흑한으로 많은 이들이 사망하자 피에르 사제의 요청으로 1956년에 만들어진 제도
 - 일반적으로 집세 2개월분을 미지급하면 법원이 임차인의 강제 퇴거를 명령할 수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가구는 동계 기간에 퇴거를 유예하도록 하는 제도임
 - 2014년 법개정으로 겨울에는 최소한의 난방이 가능하도록 동계 기간에는 가스·전기 공급 중단을 금지
 - 2023년 현재 강제퇴거 금지 기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임

- 사회적 소외 방지 협약(le Pacte du lutte contre l'exclusion 2022-2026)의 실행계획에 따르면 4개의 이행약속(Engagement)과 이를 위한 13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93개의 실행방법을 제시함. 이 협약에서 주거가 불안정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약속 1) 사회적 소외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약속 2) 15분 내 가장 가까운 지원을 받도록 하기
 - (약속 3) 모든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받도록 하기
 - (약속 4) 지속적인 동반 관계 유지
- 파리시는 매년 꾸준히 겨울에 노숙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중
 - 2021년 옛 운동용품점을 개조하여 약 80명이 숙식하며 건강진단이나 오락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
 - 2023년 사용하지 않는 고등학교 건물을 개조하여 약 120명을 수용할 공간으로 확보
 - 파리 시내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고등학교 건물 세 곳을 동계기간에 수용 공간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
 - 2023~2024년에는 노인을 위한 공간, 노숙인과 반려견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문화·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
 - 시설에 머무르려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추천을 통해 사전 등록이 필요
- 겨울철 따뜻한 식사 제공
 - 파리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2만 8,000여 명분의 식사가 매일 제공되고 있음
 - 경제적으로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무직의 60세 이상도 포함) 파리 전역에 연계된 에메랄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메랄드 카드 사전 발급 필요)
 - 에메랄드 식당 중 12곳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저녁식사 제공
 - 겨울철에는 6만여 명분의 식사가 추가로 제공될 예정. 14구에 새로운 식당 두 곳에서 총 320여 명분의 저녁식사를, 사회복지 기관 에마우스 솔리다리테(Emmaüs Solidarités)에서 100명분의 아침식사를, 파리 시청 구내식당에서 사회복지 기관인 라쇼바(la Chorba)가 250명분의 저녁식사를 여러 기관의 지원으로 제공
 - 그 외에 파리 중심가의 문화공간에서 사회복지 기관인 아트애포드와 구세군재단에서 150명분의 식사를 제공하고 17구 구청에서도 매일 평균 60여 명분의 식사가 추가 제공될 예정
- 노숙자를 위한 긴급번호 115번 운영
 - 24시간 매일 운영되며 언어 장벽 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동시통역 제공
 -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 상담사가 상담
 - 긴급한 상황에서는 관련 기관에 직접 연락을 중재하여 협력받아 응답

시사점

- 이미 1950년대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겨울 강제퇴거 금지)가 만들어졌다는 점과 공공재(가스·전기·물)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공공성을 가지도록 하는 법 조치가 인상적임
- 주거안정성이 떨어져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구 학교건물)을 겨울철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 사회취약계층의 식사 제공은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기관들과 협력·운영하여 재정과 인력 운영에서 시의 부담을 최소화함
- 노숙자들 혹은 주거안정성이 떨어지는 이들은 외국인이라도 상담(도움)받을 수 있도록 동시통역이 되는 직통 번호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적임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7710966#documentation>

<https://lachorba.fr/nos-actions/distribution-art-food>

<https://www.paris.fr/pages/aides-a-la-restauration-3847>

<https://www.paris.fr/pages/expulsions-debut-de-la-treve-hivernale-3016>

<https://www.paris.fr/pages/nuit-de-la-solidarite-2023-22835>

<https://www.paris.fr/pages/plan-grand-froid-episodes-de-neige-5471/>

<https://www.paris.fr/pages/vivre-au-quotidien-112#arrondissement-10-iznr9>

<https://www.samusocial.paris/le-115-de-paris>

핫 플레이스로 탈바꿈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지

중국 후난성 창사시 / 문화·관광

한·중 우호의 상징 중 하나인 창사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지가 위치한 중국 후난성 창사시¹⁾ 카이푸구 차오종거리²⁾ 일대가 최근 젊은 세대가 모이는 핫 플레이스로 탈바꿈함. 유적지 주변을 개발하여 젊은 세대가 역사를 배우는 새로운 기회를 만든 사례. 더 나아가 중국 시민이 자주 방문하면서 한·중 우호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

배경

- 차오종거리는 한·중 우호의 상징 중 하나인 창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포함하여 근대 유적지가 많음
- 차오종거리 남목청 6호에 위치한 창사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1년에 시작된 일제의 중국 침략이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었던 중국 상하이시까지 미치자 이를 피해 1937년부터 1938년까지 머물렀던 곳



[그림 1] 창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모습(출처: 필자 직접 촬영)

- 1) 창사(長沙)시는 허난(河南)·후베이(湖北)·후난(湖南)성이 포함된 중국의 중심인 화중지역에 위치한 후난성의 성도.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유명 시인 굴원의 고향일 뿐 아니라 중국의 4대 서원 중 하나인 악록서원이 있는 등 역사적으로 중국 남방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함. 현재는 방송·출판·애니메이션 등 문화상품의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과시 중
- 2) 카이푸(開福)구에 위치한 차오종(潮宗)거리는 송·원·명조 때 성벽이 있었던 곳으로 시를 둘러싼 9개 성문 중 하나인 차오종문에서 그 이름이 유래. 길이는 약 511미터(현재는 약 400미터만 남음), 폭은 약 9미터로 차오종문에서 창장강의 지류인 상강까지 이어져 있음

- 공관 건물을 후난성 정부가 대여해 준 것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했던 한국국민당의 이사장 김구에 대한 암살미수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유명
- 창사시는 차오종거리 일대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한 뒤 시민에게 일대에서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주요 내용

- 차오종거리 일대는 거리 남쪽에 위치한 타이핑(太平)거리 일대에 이은 창사시의 두 번째 역사·문화 구역으로 크게 철거하지도 건설하지도 않는 유기적 개조 방식으로 작업한 시 최초의 역사·문화 구역
 - 2018년 6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차오종거리 북쪽은 2019년 상반기에, 남쪽은 2019년 하반기에 각각 완공. 북쪽의 테마는 전통이며, 창사 대한민국임시정부 등이 있는 남쪽의 테마는 역사. 총면적은 24.78헥타르
- 차오종거리 역사·문화 구역을 건설할 때, 시는 서로 막혀 있던 거리와 골목을 뚫고 시민이 모일 수 있는 광장도 여러 개 만들
 - 80개가 넘는 교통 접점과 32개의 교통 순환을 새롭게 만들
 - 15개의 주요 거리와 골목 중에서 차오종거리와 푸칭(福慶)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거리와 골목에서는 차량을 통제하거나 속도를 통제하여 시민이 걸어 다니기 편하게 함
 - 외곽에 3개의 주차장을 만들어 먼 곳에서도 방문하기 편하게 함
- 시 카이푸구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을 유도
 - 2019년 말에 차오종거리 역사·문화 구역에 대한 8가지 분야(산업, 그래픽, 패션, 건축, 엔지니어링, 영상·애니메이션, 게임, 전문)의 설계를 지원하기 시작
 - 문화 창조 기업으로서의 진입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 제공: 임대 면적의 300㎡에 대해 공사 기간 포함 2년간 임대료 면제, 3년 후 구역 재정의 기여분이 50만 위안 이상이고 연간 10% 이상 성장한 기업은 기여분의 50% 반환,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대출금리 절반 할인(기업당 할인 총액은 20만 위안 이내), 유명인사나 고급인재가 일하는 기업은 연간 구역 재정의 기여분이 30만 위안 이상이면 재정 기여분의 100% 반환
- 차오종거리 역사·문화 구역의 동남쪽에는 후난성 최초의 청년 창업 공간 조성
 - 현재 온라인 홍보를 통해 후난성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양성
 - 약 8,000㎡ 공간에서 600여 명의 청년이 32개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음
 - 브랜드의 시각적 정체성과 공간 설계, 광고 제작과 홍보·운영 관리까지 전 과정을 대행. 그동안 약 1,000개의 지명도 있는 브랜드를 탄생시킴



[그림 2] 창사 대한민국임시정부 바로 뒤쪽 광장에서 방문객이 사진 찍는 모습(출처: 필자 직접 촬영)



[그림 3] 차이종거리 역사·문화 구역의 거리 풍경(출처: 필자 직접 촬영)



[그림 4] 청년 창업 공간의 모습(출처: 필자 직접 촬영)

시사점

- 유적지 주변을 개발하여 핫 플레이스가 된 사례로 젊은 세대가 잘 모르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새로운 통로 역할을 함. 특히 중국의 젊은 세대가 창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한 역사를 배우고 나아가 중국 시민이 자주 방문함으로써 한·중 우호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https://www.icswb.com/h/100037/20231121/841636.html>

http://www.kaifu.gov.cn/zfxgk/zwgkgzyd/zwgkgzydzl/lzccsgk/zdmsly/gyxss/201911/t20191129_5385371.html

http://www.kaifu.gov.cn/tzkf/ysdt/201911/t20191113_6505782.html

<https://www.icswb.com/h/152/20181203/572204.html>

강변음악회 상설 개최해 아름다운 충칭시 야경 홍보

중국 충칭시 / 문화·관광

2023년 12월 충칭시 문화와여행발전위원회의 주관 아래 충칭대극원과 충칭민족악단이 충칭대극원 야외극장에서 강변음악회를 개최. 강변음악회는 2022년 12월에 시작하여 2023년 내내 4차례 열렸고, 2023년 2월에도 개최될 예정. 충칭시는 강변음악회를 통해서 충칭의 아름다운 야경을 대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에게 중국 민족음악의 전통과 우수성을 알리고 고양시키고자 함

2023년 한 해 동안 4번 열린 강변음악회

- 충칭시 문화와여행발전위원회(文化與旅遊發展委員會)는 2023년 12월 22일 저녁에 창장강(長江)¹⁾과 자령강(嘉陵江)이 만나는 지점 옆에 세워진 충칭대극원(大劇院) 야외극장에서 강변음악회(江畔音樂會)를 개최
 - 충칭민족악단이 ‘강변민악·1주년(江畔民樂·壹周年)’이라는 주제로 막을 연 강변음악회는 추첨을 통해 일반 충칭 시민 500여 명을 무료로 초대하여 성황리에 치러짐
 - 2022년 12월 24일 충칭시 문화와여행발전위원회의 주관 아래 충칭대극원과 충칭민족악단이 ‘밤생활강변민악(夜生活江畔民樂)’이라는 주제로 처음 강변음악회를 개최하여 충칭 시민의 큰 호응을 얻음. 쌀쌀한 날씨에도 초대받은 시민이 모두 참석하여 야외에서 뜻깊은 강변음악회를 즐겼음
 - 충칭시 문화와여행발전위원회는 첫 강변음악회가 큰 성공을 거두자, 2023년 1월 춘제²⁾부터, 7월 여름 시즌, 9월 중치우제³⁾ 그리고 12월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강변음악회를 상설 행사로 해서 2023년 내내 4차례를 개최함
 - 2024년 2월 춘제에도 강변음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충칭시가 강변음악회를 상설 행사로 치르는 목적

- 충칭시 문화와여행발전위원회가 강변음악회를 상설 행사로 계속 개최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임. 첫째, 창장강과 자령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도심이 형성된 충칭의 아름다운 야경을 대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함. 둘째, 시민에게 중국 민족음악의 전통과 우수성을 알려 고양시키기 위함

1) 한글맞춤법에 따라 ‘장강(長江)’을 ‘창장강’으로 표기함(편집자 주)

2) 춘제(春節)는 음력 1월 1일에 치르는 중국 최대 명절로 한국의 설날과 비슷한데, 정식 공휴일이 7일 동안 이어짐

3) 중치우제(中秋節)는 음력 8월 15일에 치르는 중국 명절로 한국의 추석과 유사한데, 정식 공휴일이 3일 동안 이어짐

- 창장강은 양쯔강(揚子江)의 중국식 명칭으로, 길이가 6,363km에 달하는 세계 3위이자 중국 1위인 하천임. 자링강은 길이가 1,345km에 이르는 창장강의 4대 지류 중 하나임
 - 충칭시는 전체 면적 중 75%가 산으로, 도시 중심과 여러 부심이 언덕 위에 형성되어 있음. 특히 도시의 중심부에서 창장강과 자링강이 합류함
- 강변음악회가 개최되는 충칭대극원 야외극장은 창장강과 자링강이 합류되는 지점에 있고, 중국에서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홍야동(洪崖洞)이 맞은편에 있음
 - 홍야동은 2,300여 년 전 가파른 절벽을 등지고 세웠던 군사 요새가 있었던 자리인데, 샤오텐허(小天鶴)그룹이 21세기 초에 이를 11개 층의 거대한 전통 건축물로 새롭게 건설하여 현재는 충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관광지임
 - 홍야동은 층층을 특색 있는 거리로 꾸며 놓았는데, 층마다 입주한 가게에서 다양한 공예품과 특산물, 풍부한 먹거리를 팔고 거리에서 다채로운 공연이 열림. 10층과 11층은 가장 빼어난 전망을 자랑하면서 1년 내내 예약이 몰려 식당, 카페, 바가 성업 중임
 - 홍야동 앞의 자링강대교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어 위는 자동차가, 아래는 지하철이 운행하는데, 충칭시는 자링강대교를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하여 홍야동과 함께 충칭의 야경을 빛내는 핫 플레이스로 성장시킴



[그림] 충칭대극원 야외광장에서 열린 강변음악회 현장으로, 뒤편에 자링강대교와 홍야동이 보임(출처: 충칭일보)

- 홍야동 아래에는 창장강과 자링강을 떠다니는 유람선 선착장이 있음
 - 유람선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행되며, 충칭을 찾는 외지나 외국 관광객이 충칭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 위에서 감상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지리적인 위치에서 열린 강변음악회가 TV, 인터넷, SNS 등으로 생중계되어 중국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음
 - 그 덕분에 홍야동과 자링강대교에서 충칭대극원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중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중 하나로 떠오름
- 2023년 12월까지 5차례 열린 강변음악회에서는 중국 전통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4차례 열렸으며, 이를 통해 충칭 시민은 중국 민족음악의 향연을 제대로 체험함
 - 중국에서는 전통악기로 구성한 클래식 음악을 ‘민악(民樂)’이라고 부르는데, 2023년 7월 강변음악회를 제외하고는 민악을 다루는 충칭민족악단이나 다른 도시의 민족악단이 음악회를 주도함
 - 충칭시 당국이 중국 민족음악의 전통과 우수성을 시민에게 알리려는 분명한 의도가 엿보임

https://www.cqcb.com/yukuaibao/2023-12-22/5456327_pc.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85519633964231677>

<https://www.cbg.cn/web/show/5745-3259959.html>

http://news.cqnews.net/1/detail/1125323596340404224/web/content_1125323596340404224.html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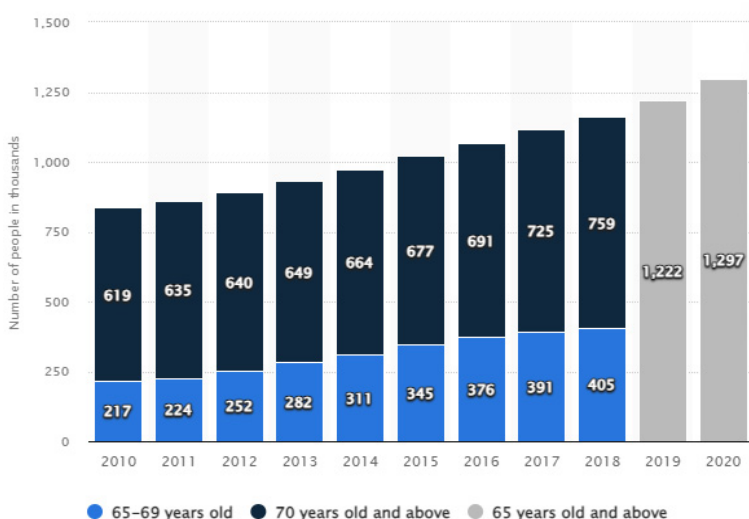
홍콩의 노령생활수당 제도

홍콩 / 사회·복지

홍콩의 사회복지부는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매월 67만 원(4,060 HKD) 수준의 노령생활수당(OALA)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득 기준에서 자녀가 주는 용돈을 제외하고 자산 기준에서 자가주택 가치를 제외하는 등을 적용하여 폭넓은 지원을 허용

배경

- 홍콩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 추세가 가파르며, 노인 복지 문제가 대두
 - 고령자 수는 지속 증가하여 약 130만 명 수준, 인구 고령화 가속화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21년 20.5%에서 2046년 36%로 증가 예상
- 최근 홍콩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한편,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재정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인 홍콩 노인들의 생활비 보충 필요



[그림 1] 홍콩의 노인 인구 통계(출처: statista.com)

- 홍콩은 노령생활수당(Old Age Living Allowance) 제도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생계를 지원 중
 - 이 제도는 2022~2023년 전체 사회복지 지출의 약 30%를 차지

신청 절차

- 본인 또는 그 친척/친구가 거주지 인근 사회보장기관(SSFU)에 직접 방문, 이메일, 우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 자격

- 거주기간 요건: 최소 7년간 홍콩 거주자였으며, 신청일 직전까지 최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연령 요건: 65세 이상
- 소득 및 자산 요건 및 지급액
 - 아래 표와 같은 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월 4,060HKD를 지급. 이는 저렴한 한 끼 식사 가격이 50-60HKD 수준임을 고려하면, 매달 지급하는 금액은 노인 1인이 한 달 식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
 - 2024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4,195HKD를 지급하며, 이와 별개로 2024년 폐기물 부과제도 시행에 따라 10HKD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

[표 1] 홍콩 노령생활수당 신청 자격 기준
(2023년 2월부터 적용된 기준이며, 2024년에는 3.3% 인상 예정)

기준	독거노인	기혼 부부	월 지급액
월 소득 합계	HK\$10,580	HK\$16,080	HK\$4,060 (2024년부터는 HK\$4,195 + HK\$10)
총 자산 합계	HK\$388,000	HK\$589,000	

- 월 총소득: 독신자 기준 1만 580HKD 미만, 부부 기준 1만 6,080HKD 미만
 - 소득 기준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퇴직연금 등이 포함되며, 가족 및 친지의 증여금이나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역모기지 프로그램에 따른 월별 지불액은 포함되지 않음
- 총 자산가치: 독신자 기준 38만 8,000HKD 미만, 부부 기준 58만 9,000 HKD 미만
 - 자산에는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 보유 현금, 은행 예금, 주식 및 지분 투자(채권, 신탁기금 등), 자동차와 택시 등의 영업 허가증, 금괴나 금화 등이 포함
 -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가입한 보험제도의 현금 가치는 제외

시사점

- 우리나라도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적어도 식사를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고령자 복지 제도가 준비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앞으로도 홍콩을 포함한 각국의 노령생활수당 제도를 참고하여 더욱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기간 가입자만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만, 홍콩의 노령생활수당은 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홍콩 계속 거주기간이 7년 이상인 노인이고, 소득 및 자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에서 한때 논의되었던 ‘기본소득’과 유사한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보임

<https://www.thestandard.com.hk/section-news/section/4/257037/HK-losing-its-young-at-alarming-rate>

https://www.swd.gov.hk/oala/index_e.html#s4

<https://www.thestandard.com.hk/breaking-news/section/4/210956/Hong-Kong-proposes-increasing-social-security-allowance-by-3.3pc>

증오·집단범죄 피해자 대상 보상금 지급

인도 델리 NCT¹⁾ / 사회·복지

델리 NCT 정부는 지역 내 증오 및 집단범죄 발생 후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 이를 통해 치료 과정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위로금 차원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며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함

정책 배경

- 인도 사회는 성별, 민족, 종교, 계급, 언어 등이 다른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범주에 따른 차별과 갈등이 일부 내재적으로 존재함
- 이에 따라 다름에 따른 증오²⁾ 또는 다수에 의한 집단범죄³⁾ 등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를 찾기 쉽지 않고 실질적 금전적 보상도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를 구원하는 지원방안이 요구됨

주요 내용

- 델리 법률서비스청(Delhi State Legal Services Authority)은 위와 같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별로 2만 루피(한화 32만원)부터 1백만 루피(한화 1,600만 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보상금 지원은 2018년도 델리 피해자 보상계획(Delhi Victim Compensation Scheme 2018)에 근거함
- 지원 금액은 범죄 형태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다르며, 지원 범주는 폭행·화상·납치·살해 등에 의한 범죄 형태를 기본으로, 사례별로 희생자의 부양가족 수·나이·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상금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집단 폭력에 의한 피해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2만 루피(한화 32만원)부터 50만 루피(한화 790만 원)의 보상 기준이 책정되며, 80% 수준의 전신 영구장아가 발생하면 20만(한화 320만 원)부터 50만 루피(한화 790만 원)의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시가 인도의 수도

2) 증오범죄는 소수 인종, 성소수자, 특정 종교인과 같은 다른 범주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이유 없는 증오심으로 불특정한 대상에게 테러 등을 가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함

3) 본 지원 제도에서의 집단범죄는 5명 이상의 신원미상의 그룹 또는 단체에 피해를 당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보상금이 지급됨

- 또한 살해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경우에는 30만 루피(한화 470만 원)부터 100만 루피(한화 1,600만 원)의 보상금을 가족들에게 지급하며 이러한 금액의 차이는 개별 피해자의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지원 수혜자는 3,300여 명 수준으로 지급 지원금은 6억 3,000루피(한화 99억 6,0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절반 수준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이며 나머지는 성범죄, 살해, 산 테러(acid attack) 순으로 나타남

정책 평가

- 지역 주민이 억울하게 증오범죄나 집단범죄로 피해를 당하면 보통 직접적 보상이 어려운데 지역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구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피해자 측면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음
- 지역 내 증오·집단범죄를 당한 소수자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지만, 혜택 제공 대상과 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사진] 소수 종교혐오 범죄에 대한 반대 시위 사진(출처: The hindu)

<https://www.dslsa.org/legal-aid-wing/victim-compensation-section/>

<https://www.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delhi-government-compensation-policy-for-mob-lynching-victims/articleshow/105690753.cms>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시카고의 도시계획

미국 시카고시 / 환경·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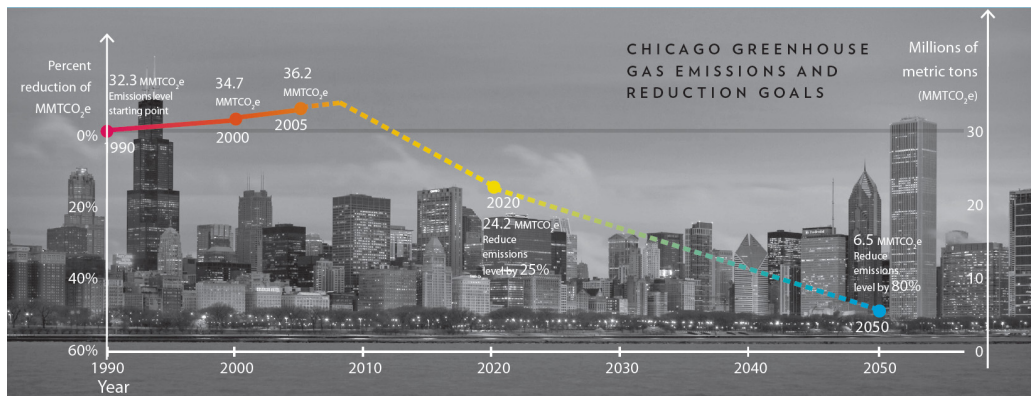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는 탄소 감축과 환경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시카고 기후 행동 계획(Chicago Climate Action Plan, CCAP)을 수립하였음. 이에 기반하여 청정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순환경제, 탈탄소 모빌리티 등 전방위적인 도시 개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정책 배경: 시카고시의 사회경제적 과제로 떠오른 기후변화

- 기후변화가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하나는 도심 지역의 기온 상승
 -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화씨 100도(섭씨 37.8도)가 넘는 날이 연중 31일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시카고 기후 행동 계획이 상정하는 배출량 감축 시나리오에서는 연중 8일로 예측
- 기온 상승은 거주 및 노동 여건의 변화를 포함하여 사회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시카고는 1995년 7월 여름에 5일 동안 폭염이 지속되면서 739명이 사망한 역사가 있음
 - 원인은 적절한 냉방 시설의 결여 혹은 높은 요금으로 접근성 부재, 범죄에 대한 노출의 공포에서 비롯한 환기나 외출 불가능성 때문으로 분석되었음
 - 이 같은 위험 요인에 불평등하게 노출되었던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었다는 진단에 근거하여, 기후변화의 피해를 단순히 자연과학적 사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됨
- 기후 행동 계획은 이전에 수립되었던 폭염 비상사태 대응 계획에 더해, 기후변화의 원인과 귀결들에 폭넓게 대응하고자 함
 - 기존 계획에는 녹지 조성을 통한 열섬효과 완화 등이 포함되었음
 - 여기에 더해 기후 행동 계획은 침수, 교통체계 교란, 오·폐수 역류 및 수로 오염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극한 호우, 시카고시에 인접하고 있는 미시간 호수의 수위 상승, 극한 겨울 기온 등을 추가적인 기후 위험으로 고려

연혁

- 2008년, 미국 주요 3개 대도시(뉴욕, 시카고, LA) 중 최초로 시 차원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저감하겠다는 목표 수립
-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파리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한 미국 정부와는 반대로 협약 준수를 선언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시의회가 모든 도시 건물을 100퍼센트 신재생에너지로 가동하기로 결정
- 2022년, 시 차원의 기후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통과되면서 2040년까지 탄소 저감 목표 수준을 기존 62%에서 67%로 상향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영역에서 이 조치들의 시행과 연관된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소들과도 협력 중
 - 도시경제개발센터(Center on Urban Economic Development), 위스콘신 전략센터(Center on Wisconsin Strategy), 모두를 위한 녹색(Green for All) 등 연구소들과 협력 중



[그림] 시카고 기후 행동 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출처: Chicago Climate Action 홈페이지)

계획 내용

-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곧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청정·재생에너지원 확대,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친화적인 교통인프라 정비,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등을 시행
-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곧 극심한 이상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온·냉방 시설 관리, 대기질 및 수질 관리, 녹지 확보 등을 추진

- 미래의 기후변화를 더욱 가속할 온실가스 감축과는 별개로, 이미 과거에 배출한 온실가스로 초래된 기후변화의 결과들은 그 자체로 대처해야 하는 결과이기 때문

<https://www.chicago.gov/city/en/sites/climate-action-plan/home.html>

<https://www.chicago.gov/content/dam/city/sites/climate-action-plan/documents/Chicago-CAP-071822.pdf>

https://www.chicago.gov/content/dam/city/sites/climate-action-plan/documents/BA_Chicago-CAP-Addendum_20230508_Reduced.pdf

https://www.chicago.gov/content/dam/city/sites/climate-action-plan/documents/EN_LLTS%20CAP%20Presentation.pdf

<https://www.wsp.com/en-us/projects/city-of-chicago-2022-climate-action-plan>

조 민 서 통신원, epeephany@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567호

발행인 윤혁렬
발행인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3년 12월 30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송도숙(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2023. 12. 30. 567호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이 보고서의 내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한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